Sports p/22

박인비 세계랭킹 1위 등극

# 군대 가산점 vs 엄마 가산점 '시끌'

## '워킹맘 취업재 혜택' 국회 심의착수에 성대결 양상

취업 가산점을 둘러싼 논란이 성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와 '군 가산점제'가 논란의 중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엄마 가산점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여성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중복 혜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엄마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임신·출산·육아 기간은 경력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 및 사회 복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엄마 가산점 제도의 도입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 복무자에게 '엄마 가산점제'와 같은 혜택을 주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군 가산점제도는 1999년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아 여성·장애인 등 군 미필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됐다. 국방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요즘 젊은이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자긍심보다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은 "두 가산점제 모두 혜택이 공무원 수험생 소수에게 돌아가는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육아비,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군인의 최저임금을 개선하는 등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 역시 "박근혜 대통령도 못 받는 가산점제가 도입되나" "아이 혼자 키우는 아빠에게도 가산점을 줘야 한다" "최근 여성 권익 상승=남성 권위 하락의 결과" "군대 못 가고 결혼 못해 애 못 낳으면 국민도 아닌가" 등 불만을 쏟아냈다.

/김유리기자 grace@metroseoul.co.kr

다시 떠오른 9·11 악몽 15일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고 현장에서 두 번째 폭발이 발생하자 경찰들이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왼쪽). 폭발 현장에 있던 남성이 바지가 너덜너덜하게 찢긴 채 걸어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 아빠 응원하던 8세 소년도 참변…보스턴 폭탄테러 140여명 사상

응원의 함성이 한순간 비명으로 바뀌며 미국 전역이 또다시 테러 공포에 휩싸였다.

15일(현지 시간) 오후 2시50분께 96개국 2만7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제117회 보스턴 마라톤 결승선 근처에서 2차례 폭발이 발생해 8세 남자아이를 포함해 적어도 3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다쳤다. 특히 폭발물에 다량의 쇠구슬이 장착돼 피해가 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관련기사 10면>

보스턴 지역 한 의사는 "부상자들의 몸에서 잔인한 금속 파편이 검출됐다"며 "전체 부상자 중 몇몇은 밤을 넘기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등 당국은 정확한 사건 원인을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간주하고 있다. 검찰은 테러 현장 부근에 있던 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자를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CBS 방송이 보도했다.

미국 사법 당국은 사건 직후 잠재적인 원격 기폭을 막으려고 보스턴 지역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중단했고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보스턴 폭발 사고 인근 지역에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을 설정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용의자와 범행 동기 등을 아직 밝혀내지 못했지만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투표안내문 발송 16일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에서 우편집배원이 4·24 재보선 투표안내문을 우편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 알바찾기 모바일 시대

## 스마트폰 앱 터치만하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일자리 줄줄줄~

# 대학생 신예림(25)씨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알바 자리를 생각보다 쉽게 구했다. 학교 근처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터치했더니 인근 알바 공고를 거리 순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신씨는 "과거에는 전단지나 PC 검색으로 알바 자리를 알아봤는데 최근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 더욱 신기했다"고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

# 학용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윤모(42)씨는 새 학기를 맞아 일손이 달리자 스마트폰 앱에 도움을 청했다. 원하는 시간과 임금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입력해 알바 공고를 올린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희망자가 나오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 윤씨는 "알바 전단 제도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전단지를 붙이다 보니 채용하려면 적어도 2~3일은 걸렸다"며 "알바 앱을 이용하니 지원자도 늘고 채용 속도도 빠르다"고 만족해했다.

알바 시장에도 모바일이 대세다. 빠른 시간 내에 구인과 구직이 이뤄져야 하는 알바 시장의 특성을 스마트폰이 위치기반 서비스 등으로 충분히 해결해낸 덕분이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모바일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알바 지원자 10명 중 4명은 모바일로 입사 지원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2010년 10월 모바일 지원자가 4%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알바 채용 공고 검색도 모바일 검색 횟수는 152만여 건으로 전체 검색 횟수의 46%에 달했다. 2011년 4월의 16%와 비교했을 때 점유율이 3배가량 오른 셈이다.

알바몬의 이영걸 사업본부장은 "아르바이트 채용 시장은 정보력과 시간의 싸움"이라면서 "구인 구직이 빠르게 이뤄지는 알바 시장에서 모바일 서비스가 알바 업계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대한민국 끄떡없다" 경제부총리의 베팅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경제5단체장들이 11일 관악구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카지노 실습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 & 뉴스

### 노인·장애인 학대 신고안하면 300만원 과태료

●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의료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에게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상담원 등의 신고의무를 강화하도록 한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유리기자

###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40% 5년 넘어 건강위협

● 전국 초·중·고교의 인조잔디 운동장 40%는 사용한지 5년이 넘어 노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모(민주통합당) 서울시의회 의원은 16일 "현재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한 전국 1580개 학교 가운데 38.8%인 613개교의 운동장이 사용한지 5년이 넘었다"면서 "2011년 환경부가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인 아연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적절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동호기자

### 국제선 항공 유류할증료 두달 연속 하락 희소식

● 국제 유가가 두 달 연속 하락하면서 유럽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20달러 내리는 등 항공편 이용이 보다 저렴해진다.

16일 항공업계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MOPS)의 평균 가격이 배럴당 120.33달러로 낮아져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6단계에서 다음달 14단계로 하락한다고 밝혔다. /권보람기자

### 서울메트로 명예역장 위촉 33개역에서 역무체험 행사

서울메트로는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교통약자 33명을 명예역장으로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명예역장은 17일 제기동역 등 8개 역, 19일 청량리역 등 9개 역에서 역내 안내 방송, 비상전화 사용, 무선 안내 방송 실시, 편의시설과 교통카드 발매기 점검 등 역무 체험을 하게 된다. 체험 행사는 24일까지 모두 33개 역에서 진행된다.



### 취득세 면세기준 6억…양도세는 6억 또는 85㎡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세 기준이 6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면적 기준(전용면적 85㎡)은 제외됐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국회에서 4·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부부 합산 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 최초로 85㎡·6억원 이하 인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정부안에서 집값 기준 6억원을 유지하되 면적 기준을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연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1000만원 높이기로 했다.

여야정은 또한 양도소득세 면세의 경우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안의 집값 기준 9억원이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배동호기자 ☞ 8면

한·미 정상 다음달 7일 백악관서 첫 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쓰레기 봉투 제작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연다. /연합뉴스

### "경기 살린다" 역대 두번째 20조 추경

정부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17조3000억원과 기금 지출 증액 2조원 등 모두 1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공기업 투자 1조원을 늘린 것을 포함하면 총 20조원을 웃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고 18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으로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대, 연간 2% 후반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3000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직접 일자리 1만5000개 등 모두 4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배동호기자

**열공선물 받고 A+ 받으세요** 16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금잔디 광장에서 열린 중간고사 응원 '열공선물' 지원 행사에서 카리 김지영과 에드 렉스 크리스탈이 학생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 '갤S4' 16GB 안나온다

## 32·64GB 두 종류만 출시… '특별가격' 더 들듯

국내 소비자는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S4'를 다소 비싼 가격에 장만해야 할 전망이다.

이 제품이 한국에서는 16GB를 제외한 32·64GB용으로만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측은 16일 "4월 말께 출시할 갤럭시S4는 32GB 이상 제품으로만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16GB 제품을 선보이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갤럭시S·S2·S3 때는 16GB 제품이 저장공간 용량은 가장 작은 대신 가격도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데 한몫을 했다.

갤럭시S4의 강력한 라이벌인 아이폰의 경우 16·32·64GB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문제는 최초 출고가가 기존 예상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갤럭시S3는 32GB 제품의 출시 당시 출고가가 99만4400원으로 16GB 제품보다 약 5만원가량 비쌌고, 갤럭시 노트도 첫 출시 때 선보인 32GB 제품이 나중에 추가된 16GB 제품보다 6만5000원가량 비싼 99만9000원이었다.

그러나 갤럭시 노트는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출시 넉 달여 만에 결국 16GB 제품을 내놨고, 갤럭시 노트Ⅱ도 미국 등 해외에서는 16GB 제품을 시판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S4도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의 요청 등에 따라 앞으로 16GB 제품을 추가로 선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삼성 관계자는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 페트병 재사용해도 환경호르몬은 검출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나 생수를 담았던 페트병은 다시 쓰면 세균 오염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재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페트병은 입구가 좁아 깨끗이 세척하기도, 완전히 건조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특히 입을 대고 물을 마실 경우 입이 닿는 순간부터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하는 만큼 장기간 보관하며 마시는 것 역시 피해야 한다.

그러나 페트병은 원료와 재질의 특성상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비스페놀A(BPA) 등 내분비계 장애 물질, 이른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 또한 90도 이상의 뜨거운 액체를 넣거나 산성이 강한 식품을 담아도 원료 성분은 흘러나오지 않는다. /박지원기자 pjw@

구청소식

### 장애인 작품전시회 등 개최

서울 **송파구**는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17일 구민회관 1층 로비에서 장애인 화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회시랑 전시회가 열리고, 이날 열리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난타·마술 공연과 바비큐 파티가 함께 마련된다. 21일에는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경기를 관람할 계획이다.

### 어르신 모시고 택시 나들이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구로구** 나들이 봉사단'이 16일 나들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이날 '청춘 택시 타고 GO~GO~'라는 행사명으로 20대의 택시가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백련사, 평화전망대를 방문한 뒤 돌아왔다. 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외출 시 택시로 이동을 도와주는 활동을 해왔다.

### 주민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서울 **노원구**는 영세 자영업자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규모는 총 13억6400만여 원으로 주민소득지원금은 3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까지다. 구 복지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2-2116-3661)로 자격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은 뒤 18~30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황사철 맞아 식품업소 점검

서울 **중랑구**는 황사철을 맞아 식품업소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관내 식품 제조 가공, 즉석 판매 제조·가공, 식품 소분, 기타 식품 판매업소 등 모두 376개소에 대해 황사 발생 시 식품안전관리 요령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위해 물질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배동호기자

##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805> 그림 박상철

### 천재 작가 이상 요절

1937년 4월 17일, 일본 도쿄 제국대 부속병원에서 폐결핵이 악화된 시인 이상이 27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일제강점기의 문인으로 폐병의 절망을 안고 기생과 동거하며 난해한 초현실주의 시 '오감도'와 소설 '날개'를 써내 천재적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다방과 카페 경영에 실패하고 절망 끝에 건너간 도쿄에서 "멜론이 먹고 싶다"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생을 접고 말았다.

**봄과 함께 '찰칵'** 16일 서울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만개한 진달래꽃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 주택가 원룸에서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대량 제조한 30대 친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이모(31), 김모(31)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사진은 필로폰을 제조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원룸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

## 일자리 지원 '행복나눔센터'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정

부산 해운대구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인 '행복나눔센터'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매니저, 코디네이터 등의 인건비 등 2억6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해운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17일 개소식을 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가고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1인 기업의 마케팅 등을 돕는다.

## 시민도서교환전 오늘 개최

부산시립구포도서관은 17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도시철도 서면역 대합실에서 음악회와 함께 하는 '시민도서교환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책을 가지고 행사장을 찾으면 1인당 5권까지 다른 책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단 전집류, 수험서, 교과서, 참고서, 잡지 등은 제외된다.

교환전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 중 선착순으로 100명에게 산지니 출판사, 영광도서, 성공도서, 보수동 헌책골목의 대우서점 등 부산지역 서점과 출판사에서 후원한 새 책을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한편 구포도서관은 부산교통공사, 경성대 등과 손잡고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서면역 대합실에서 시민도서교환전을 열고 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총괄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종준
서울광고문의 (02)721-5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0-2100
독자센터 (02)721-9862
2002년 5월 31일 창간 2002.5.3일 등록번호 문화가 00117

# 배려&나눔…장애인 축제 한마당

## 강서체육공원서 내일 열려 - 콘서트 등 행사 풍성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부산지역에서 의미 있는 행사들이 진행된다.

우선 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오는 18일 부산 강서체육공원에서 기념행사와 함께 지역 장애인들의 축제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날 기념 행사는 '배려와 나눔으로'라는 주제로 오전 10시30분부터 내외빈과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다.

1부 기념식에서는 모범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유공자들에게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감 등의 표창이 수여되고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콘서트'가 열린다. 콘서트에 출연할 장애인들은 예심을 거쳐 선발됐다.

이와 함께 행사장 밖 자전거보관소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구 전시 및 수리, 장애인 생산품 전시전 등 30여 종의 부대 행사가 마련된다.

◆오늘 찾아가는 보조기구 전시·영화관람회

또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보조기구센터도 앞서 17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지하철역 연결 통로에서 '찾아가는 보조기구 전시회'를 연다.

이 전시회에서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조기구가 전시된다.

특히 컴퓨터 접근 보조기구, 감각 장애인 보조기구, 일상생활 보조기구 등 정부지원제도로 지급이 가능한 각종 품목을 전시하고 시연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17일) 오후 4시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는 장애인 문화향유권 보장 및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배리어프리(시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화면 해설 제작 영화) 영화 단체관람회'도 진행돼 그 의미를 더한다.

이 상영회에는 공무원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특히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참석 공무원들은 안대로 눈을 가리고 영화를 관람하게 된다.

/김수미기자 kasm@metrobusan.co.kr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이상무' 경남 산청군이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A형(H7N9)항의 차단을 위해 16일 생초면 대포리 강종철씨 농가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산청군 제공

## 낙동강 4개 생태공원 꽃단지 조성 손님맞이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낙동강 4개 생태공원(삼락, 화명, 맥도, 대저) 내 총 56만㎡ 면적에 27개 계절별 꽃 단지를 조성해 본격적으로 봄나들이 손님맞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존 꽃 단지 외에 ▲삼락공원 내 장포 군락지, 코스모스 단지 ▲화명공원 내 금계국 꽃 단지, 황화 코스모스 군락지, 팬지꽃 단지 등 총 5개의 신규 꽃 단지를 추가로 마련해 휴일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저생태공원 유채꽃 단지에서는 '제2회 낙동강 유채꽃 축제'도 개최할 계획이다.

대저 유채꽃 단지는 36만3000㎡ 규모의 국내 최대 유채꽃 단지로 바람개비, 별 모양의 보행자 동선과 하수아비 등의 조형물, 꽃동산 사진촬영 구역 등이 마련돼 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문화 공연과 농촌사진전, 연날리기, 전통놀이(투호·널뛰기) 등의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마이스 페스티벌 아이디어 찾아요

### 5월6일까지 공모

부산시가 '제2회 부산 마이스 페스티벌(MICE FESTIVAL 전시컨벤션의날 6월 3~5일)'에서 활용할 톡톡 튀는 시민의 행사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 행사는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글로벌 MICE 중심도시 부산'이라는 주제로 부산시-부산관광공사-벡스코-한국관광공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다.

주요 행사로 ▲개막식(6월 3일) ▲국제 마이스 포럼(6월 3일) ▲부산 마이스 로드 선포식 및 행진 ▲마이스 얼라이언스(MICE ALLIANCE) 행사(6월 4일) ▲마이스 시민 관광투어(6월 4~5일) ▲마이스 고용박람회(6월 4~5일) ▲마이스 사진전 ▲대학생 모의 국제회의 등이 예정돼 있다.

공모는 본 행사 개최에 앞서 5월 6일까지 진행되고 부산 마이스 페스티벌 기간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모 내용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 마이스 업계 관련 행사, 마이스 도시 홍보, 기타 행사 취지에 적합한 이벤트 등이다. 문의 (051)888-6444~5

## 문화예술행정 아카데미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시의 창의적인 문화예술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연수 과정이 오는 23~25일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2013 문화예술행정 아카데미' 사업은 부산시에서 추천받은 교육생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첫날인 23일에는 꿈꾸는아트랩 이지훈 대표의 '부산문화 비전 2020' 강의와 인극놀이연구소 'As If(에즈이프)' 이미연 소장이 네트워킹 및 문화예술교육 체험 시간, 성남문화재단 박지훈 문화사업기획부 차장과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 성공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 등이 마련된다.

24일에는 '카메라에 부산을 담다'를 주제로 문진우 사진작가와 함께 부산의 벽화마을을 중점적으로 다니면서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고, 사진작가에게 직접 사진을 잘 찍는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 25일에는 '문화감성지수 높이기' 수업으로, 국립부산국악원 이정원 예술감독의 강의를 통해 국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 다양한 양성평등 시책 개발

부산시는 남녀 성별 특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양성평등 시책을 개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먼저 일상생활에서의 성별 특성, 사회적 경제적 격차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 이를 개선하려면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성인지 의식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문강사 강의를 통한 직장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찾아가는 구·군 공무원 현장교육 등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실적을 전산화한다.

# 이라크 수재들 부산 유학 온다

### 부경대에 7월 입학 · 한국 대학 공식파견 처음

이라크 젊은이들이 부산에 대거 유학을 온다.

부경대는 (사)한 이라크친선협회 주선으로 이라크 정부 선발 대학생 10명이 오는 7월 1일 입학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라크 대학생의 부산 유학은 이라크 정부가 전쟁 이후 복구를 위한 재건사업에 중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

무하메드 푸아드 조디(Mohammed Fuad Jodah·25)를 포함한 10명은 57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선발된 수재들이다.

이라크 정부 선발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공식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라크 젊은이의 부산 유학은 우리나라의 '지식 원조'의 첫 시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부경대에서 통신공학, 화학공학, 전기공학, 통신공학,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박순자 한 이라크친선협회장(전 국회의원)은 "이번 유학이 한국과 이라크 양국의 교류 확대와 인재 육성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섭 부경대 총장은 "부경대의 전신(前身)으로 근대식 공업기술 교육기관의 효시로 설립된 부산공업대와 부산·경남지역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부산수산대가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며 대한민국 전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경대를 찾은 것"이라며 "특히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 조선, 자동차, 기계부품, 신발 등 공업단지가 부경대 인근에 위치해 있어 현장 학습이 용이하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유학생들이 이라크 국가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희기자 kan@metrobusan.co.kr

## 청년 미술작가 열정 펼쳐라

### 공모전 작품 신청접수

BS금융그룹이 젊은 미술작가들의 창작 의지를 높이기 위해 지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청년작가 미술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 공모전보다 수상자와 상금을 대폭 확대해 대상 1명에게는 상장과 700만원의 상금을, 우수상 2명에게는 상장과 각 500만원의 상금 등 총 35명에게 5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지원 자격은 1974년에서 1993년 사이 출생한 작가로 부산·울산·경남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부문은 한국화와 서양화 두 부문이며 16일부터 6월 2일까지 작품 사진 접수를 먼저 받는다. 실물은 6월 11일까지 중구 신창동 BS부산은행 갤러리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심사 결과는 7월 2일 시상식을 통해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BS부산은행 갤러리 홈페이지(www.bsgaller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선된 작품들은 BS부산은행 갤러리에서 6월 17일부터 2주간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 전시된다.

### 필그림, 20일 고준희 팬사인회

덴마크 패션 주얼리 브랜드 필그림이 오는 20일 고준희를 초청해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오후 2시)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오후 5시)에서 팬사인회를 진행한다.

각 백화점 1층 본관 정문에서 진행될 이번 팬사인회는 필그림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인회 우대 교환권을 증정해 당일 우선적으로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낙동강변은 노란 유채 물결** 16일 오후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강변에 활짝 핀 노란색 유채꽃이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하고 있다. 유채꽃밭 뒤 낙동강에는 등록문화재 제145호로 지정된 명물인 옛 자란색 남지철교와 평간석 새 남지교가 나란히 서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제6회 창녕 유채축제'가 펼쳐진다. 낙동강을 낀 유채단지는 무려 60만㎡로 단일 재배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 기능경기대회 폐막 입상자 170명 배출

2013년도 부산시 기능경기대회가 6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15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509명의 유능한 선수들이 40개 직종에 출전해 각 분야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시상식에서는 직종별 1~3위까지 금·은·동 133개의 메달이 주어졌으며, 각 분야별 참가 인원 수에 따라 우수상이 수여돼 총 170명의 입상자가 배출됐다.

전체 입상자 중 특성화고교에서는 메카트로닉스 등 직종에서 136명이, 부산시 여성회관에서 조각보 등 직종에서 8명이, 부산여자대학에서는 요리 등 직종에서 4명의 선수들이 상을 받았고 일반 개인 수상자는 19명이다.

특성화고교 중에는 부산기계공고에서 37명, 부산자동차고등학교에서 16명, 부산디자인고에서 14명의 입상자가 나왔다.

### 바다미술제 작품 접수하세요

개장 100주년을 맞은 올해 부산바다미술제가 송도해수욕장에서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With 송도, 기억 흔적 사람'을 주제로 열린다.

사단법인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올해 전시는 개장 100년을 맞는 송도해수욕장의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송도해수욕장에서 열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조직위는 전시 작품 가운데 20점을 일반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로 국적 제한 없이 응모가 가능하다. 출품작은 현대미술의 모든 장르를 포함한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500만원, 우수상 1명에게는 1000만원, 특선 18명에게는 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 "란제리 술시중은 풍기문란"

유흥주점에서 란제리 차림만 입은 여성이 술 시중을 드는 것은 풍기문란 행위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재판부는 업소 '란제리 클럽'을 운영하다 적발돼 벌금 150만원과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받자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업주 이모씨에게 1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흥주점 영업에서는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것이 허용된다"며 "그러나 이씨 업소는 그 범위를 벗어나 위생 관리와 질서 유지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초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접객원이 손님 앞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란제리 속옷만 입은 채 유흥을 돋우도록 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illegible]기자

## 10대 스마트폰 절도단 벽돌로 유리 깨고 털어

전과 합계 39범에 이르는 10대 4명이 휴대전화 매장을 털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매장에 침입해 1억원 가까운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16)군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4시31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휴대전화 매장의 강화유리를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스마트폰 7대를 훔치는 등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 일대 휴대전화 매장 6곳에서 스마트폰 98대 등 937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illegible]기자

# "학생상담 엄두도 못내"

### 초중고 교사 62% 일주일 1시간 이하…"과도한 업무 때문"

초·중·고교 교사 62%는 학생과 상담하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 총 1시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당국이 교원의 잡무를 줄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상담 시스템을 만드는 등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상담을 늘리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6일 주장했다.

교총이 지난 4~9일 전국 초·중·고교 교사 1609명을 대상으로 벌인 '초중등 교원의 학생·학부모 상담 실태 설문조사'에서 일주일간 학생과의 상담 시간을 묻는 항목에 전체의 62.2%(1000명)가 1시간 이하라고 답했다.

일주일간 30분 이상 상담을 못한 교사도 29.5%(475명)에 달했다.

상담 횟수는 대면과 전화, 온라인 상담을 모두 포함해 3회 미만이 37.1%(597명), 3~5회가 36.8%(592명)였다. 교사 약 74%가 하루에 학생 1명을 채 만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9.7%(799명)는 학생과의 상담 시간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충분하다고 답한 교사는 17.7%(285명)에 불과했다.

학부모와의 상담 부족은 더욱 심각했다.

일주일간 학부모와의 상담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86.9%(1398명)에 달했고, 30분 미만도 56.4%(908명)로 절반을 넘었다. 상담 횟수는 3회 미만이 82.3%(132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용국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학교폭력 안 돼" 16일 경기도 수원 황운중학교에서 이은 경기지방경찰청장과 학생들이 학교폭력 근절을 기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포스트잇 1320장으로 대형 초롱이 그림을 완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발바닥, 발가락 통증? 더 이상 참지마세요!

## 발바닥에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하거나,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하게 전기통하는 느낌이 든다면 지간신경종(몰톤씨신경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하는 지간신경종은 처음에는 발가락이 절려지는 부분인 발바닥의 앞쪽에 무언가 이물질을 한 겹 붙여놓은 것처럼 느낌이 둔감하거나 마치 모래를 밟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각이 이상하기도 한다. 가만히 있을 때에도 발바닥 앞쪽에 화끈거리고 심하면 통증마저 느껴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병원에서 엑스선을 찍어보고, 허리가 원인인가 싶어 허리 MRI도 촬영하고, 혈관문제인가 싶어 혈관조영술을 해봐도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둘째 치고 걷는 것마저 힘들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현대인의 발은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다**

발은 신체의 모든 뼈 중 5분의 1이 몰려 있고 평생토록 지구의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움직인다. 최근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통증은 곧 질병의 신호. 발의 작은 통증 하나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기도 한다.

'예쁜 발=작은발'이라는 통념이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여성들은 발이 크면 미련해 보일까봐 발이 작고 날씬해 보이는 신발을 선호하는데 이런 신발을 애용하는 여성분은 발의 앞부분인 중족골과 발가락 신경에 생기는 지간신경종을 주의해야 한다.

지간신경종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한 압박을 받거나 발가락 사이에서 눌려 붓는 질환을 말한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가락 신경과 주변 조직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져서 골무게 전체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발바닥의 앞쪽 부위가 저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중년 이후 분들에게 흔히 발견된다. 가끔 발바닥 통증을 허리쪽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오인해 병원으로 오는 환자도 제법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부산에서도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치료해**

부산에서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등 족부관련질환을 전담하여 치어하는 족부클리닉을 운영중인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몸을 지탱하는 받침대인 발은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오묘하게 움직이지만 어느 한 곳만 이상이 생겨도 보행에 필요한 균형을 잃고 연쇄적인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며 "발가락은 한 번 변형되면 다른 발가락을 변형시키고 무릎, 허리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변형과 통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손과 발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이 중요한 손과 달리 발은 체중을 부하하여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행을 편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치료해야 하며, 발이 불편하면 보행이 힘들어지므로 무릎, 허리, 척추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

**디스크, 하지정맥류, 혈관장애 등으로 오인, 오랜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간신경종은 매우 다양한 감각 이상을 호소한다.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덜하다가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 밟으면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린다. 특히 발가락과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뼈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이 부위는 발바닥중에서 체중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마치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한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한 느낌이 뻗치고 때론 발이 시리거나 뜨겁다고 호소한다. 특히 심할수가 악연히 발이 저리다고 하는데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혈관 장애 등으로 오인받아 MRI나 혈관검사 등을 해보지만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경을 잘라내지않고, 절골술을 시행, 지간신경종의 원인을 제거한다**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를 절제하지 않고, 중족골 사이에 끼어서 붓게 된 지간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동통,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의 이준호 원장은 지간신경종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법을 시행하여 수술 부작용을 더 줄이고, 재발률 걱정도 덜어준다. 그러면서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지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환자부담도 덜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 IT 액세서리, 패션이 되다

## BMW 바이크족 위한 전용 폰케이스·운동족 위한 밴드형 케이스 눈길

제품 케이스에 머물던 IT 액세서리가 진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액세서리'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15일 출시된 BMW 계열 미니 뉴 폴딩 바이크는 자체 전용 가방과 아이폰 케이스를 내놓았다. 이 아이폰 케이스는 접이식 자전거인 뉴 폴딩 바이크의 핸들에 꽂혀 터치스크린 기능이 활기되는 등 복수 제작됐다.

미니 관계자는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액세서리도 모델느낌과 일치하길 바란다"면서 "이미 업계는 제품을 이용할 때 필요한 액세서리를 맞춤 제작해 소비자의 편의를 돕고 브랜드 이미지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시장에서 두드러진다.

최신 스마트폰 패션의 완성은 두 겹 케이스다. 스마트폰 케이스 위에 다른 색상의 케이스를 덧씌워 기기 보호와 패션 효과를 동시에 얻는 것이다.

휴대전화 거치대는 단순한 거치 기능에서 충전도 되고 책상 위 패션 소품 역할까지 한다. 태블릿 PC 케이스는 외부 충격 보호 작용과 함께 눈높이 조절도 할 수 있다.

IT기기 액세서리 업체 벨킨은 팔뚝에 스마트폰을 고정할 수 있는 밴드를 만들어 냈으로 운동량을 체크하는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태동 벨킨 한국 과장은 "알록달록한 색상의 노트북 백팩은 남자 직장인이 부담 없이 패션 아이템으로 애용하는 추세"라면서 "IT 액세서리의 진화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윤하기자 uniu@metroseoul.co.kr



**햇 배추 1포기 2000원** 롯데마트는 16일 경남 창녕 하우스산 햇 배추를 전 점에서 2000원(1포기)에 판매한다고 전했다. 약 200t의 배추를 17일부터 24일까지 판매한다. /연합뉴스

# CEO 고령화… 평균 59세

### 100대 기업 조사 결과 20년새 5세 가량 상승

100대 기업 CEO의 평균 연령이 59.44세로 지난 20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간 현대경영은 100대 기업 대표이사 152명의 프로필을 정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CEO들의 평균 연령은 59.44세로 1994년 조사(54.9세)때 보다 4.5세 높아졌다.

이는 경기 침체기 장기화하면서 젊은 CEO로 모험하기보다 경험이 많은 CEO로 보수 안정을 도모했기 때문이라고 현대경영은 분석했다. 이공계 출신 비중은 48.7%(73명)로 상경계 35.3%(53명)와 사회과학계 8.67%(13명)를 합한 44%(66명)보다 4.67%포인트 높아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SKY 출신은 61.8%(94명)로 지난해보다 5.3% 포인트 줄었고 충청권 CEO가 16명으로 지난해 10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국헌기자 kaxlee@

## 쿠팡 첫 연간 흑자 달성 화제

소셜커머스 업체가 본격적으로 도약한다. 출범 3년 만에 연간 기준으로 흑자를 달성한 브랜드가 탄생했다.

쿠팡은 지난해 사업 소득에 의한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연간 16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업계 최단기간 월 단위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연간 기준 흑자를 달성했다"며 "2012년 총 거래액은 8000억원을 넘었고, 올해는 총 거래액 1조원 이상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의 흑자 달성은 사업 역량을 철저히 서비스에 집중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통해 경영 내실을 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모바일에서의 거래 비중 급증도 흑자 달성의 주요 요인으로, 지난 2011년 8월 스마트폰용 앱 출시 이후 모바일 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현재는 모바일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총 거래액의 40% 수준으로 높아졌다.

쿠팡은 현재까지 총 1억3000만 장의 쿠폰을 판매하며 급격한 성장을 이뤘고 총 가입자 1800만 명 및 PC 기준 월 방문자 85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국내 온라인 쇼핑 사이트 중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선훈기자 zero@

## "4·1 덕 보자" 분양 늦추는 건설사들

### 법인 국회통과 시점 이후로

건설사들이 '4.1 부동산대책 혜택'을 기대하며 분양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단은 분양 시기를 조정 중인데, 법안의 국회통과 시점 이후로 늦춰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아산 더샵 레이크시티' 분양을 이달 5일 할 예정이었다가 12일로 일주일 늦춰 개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아파트 계약 일정을 부동산대책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과 맞추기 위한 것이다.

대우건설 역시 경기 의정부 민락 보금자리지구 '의정부 민락 푸르지오' 견본주택을 오는 19일 열고 일반 분양에 나서기로 했다. 역시 계약 시점을 대책 통과 직후로 하기 위해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4.1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분양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분양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

market index <16일>

| 코스피 | 코스닥 |
|---|---|
| 1922.21 (+1.76) | 558.95 (+4.95) |

| 금리 | 환율 |
|---|---|
| 2.51 (-0.05) | 1115.00 (-2.50) |

## SKT '소셜 매니저' SNS능력 보고 뽑는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만 잘 활용해도 SK텔레콤에 취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소셜 미디어 채널을 운영할 인턴사원인 '소셜 매니저'를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학력이나 어학 능력 등 이른바 '스펙'은 선발기준에서 배제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자신을 잘 표현하고 타인의 공감을 이끌어내는지를 심사해 선발할 방침이다. 지원자는 28일까지 SK텔레콤의 페이스북(facebook.com/skt world)에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입력하면 된다. 특히 지원 접수부터 각 단계별 미션수행, 최종 선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합격자는 6월말부터 6주간 SK텔레콤 본사에서 근무하며 올해 하반기 이 회사 공채 모집 지원 때 서류 전형 면제의 특전이 주어진다. 인턴십 종료 후 미국 실리콘밸리의 SNS 회사를 직접 방문할 기회도 얻는다. /이국명기자 kmlee@

뉴스&뉴스

### 디아지오 '취약층돕기' 50억 출연

주류업체 디아지오코리아(김종우 대표, 왼쪽)가 16일 올해부터 5년간 총 50억원을 출연해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여성가족부(조윤선 장관)와 함께 사회 취약 계층 지원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효순기자

### '카드 수수료' 대형마트 백기

● 대형마트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분쟁이 마무리됐다. 대형가맹점이 '백기'를 들었다. 대형가맹점의 99%가 새 수수료 체계를 수용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262개 카드 대형가맹점 중 98%가 지난해 12월 말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수수료율 인상을 수용했다. /김학철기자

### 대기업 새 외식브랜드 허용

● 대기업의 음식점 신규 브랜드 진출이 허용될 전망이다.

16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음식점업의 출점 제한 기준을 정하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내놨다.

이번 안이 확정되면 외식업계 34곳이 새 브랜드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김성현기자

# 금값 붕괴… 노랗게 질린 한은

### 키프로스·中성장률 쇼크 겹쳐 33년래 최대 낙폭
### 고가에 매입 늘려온 한은 '큰 손실'에 항변 바빠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금값이 폭락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금 관련 종목의 주가가 연일 급락을 면치 못할 뿐더러 외환보유고의 금 비중을 늘려온 한국은행 역시 비상이 걸렸다.

16일 국내 증시에서 금 관련 대표종목인 고려아연은 이틀째 급락했다. 전날 14% 넘게 빠지고서 다시 4.91% 하락했다. 호주 금광회사인 테랑가골드와 얼레미서골드는 현지 증시에서 최근 12%, 9.1% 크게 하락했다.

한은도 시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금값이 이미 오를대로 오른 최근 2년새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여 디가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은은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적극적인 금 매입에 나서 2010년 6월 당시 14.4t 규모이던 금 보유량을 104.4t까지 늘렸다. 전체 외화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율(장부가액 기준)도 당시 0.03%에서 1.5%로 확대됐다.

특히 금값이 온스당 1714달러를 웃돌며 강세를 보이던 지난해 11~12월 금 매입을 늘린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금값은 이날 현재 1360달러선까지 밀리며 불과 3~4개월 만에 온스당 350달러나 빠진 상태다.

다만 한은 측은 "장기적으로 금 보유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금값 등락은 피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금 비중(1.5%)이 인도(9.9%), 대만(5.6%), 태국(4.5%), 일본(3.2%), 싱가포르(2.6%)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적은 수준임을 강조했다.

국제 금값은 최근 키프로스 위기로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재발하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15일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본격 곤두박질쳤다. 15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은 33년 만에 9%를 넘는 낙폭을 기록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빛 바랜 금값… 하루새 9% 폭락 금값이 9% 이상 폭락하면서 1980년대 이후 하루 기준으로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뉴시스

## 수입차 출고 3년후엔 '반값'

### 2010년형 감가율 44%
### 국산차보다 10% 높아

수입차는 3년이 지나면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싼 수리비 탓이다.

16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2~3월 중고차 전문업체 SK엔카에서 거래된 2010년형 차량(3년 전 출고)의 감가율을 조사한 결과 수입차 감가율이 국산차보다 평균 10% 높았다.

수입차의 감가율 평균은 44.5%였다. 국산차는 이보다 낮은 34.3%로 집계됐다.

실제로 이 기간 매매 실적이 있는 중고차 가운데 감가율 상위 26종에 수입차 16종, 국산차 10종이 각각 포함됐다.

특히 감가율 상위 10종은 모두 수입차로 감가율이 46~56%를 오갔다. 구매 3년만 지나면 중고차 시장에서 출고가의 절반 가격에 팔리는 등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감가율 1위는 렉서스 LS460로 3년 만에 7000만원 이상을 까먹었다. 출고가가 1억3000만원이었지만 5800만원에 거래돼 감가율이 56.55%에 달했다.

2위는 인피니티 G37로 감가율은 53.99%로 집계됐다. 출고가 5280만원에서 3년 만에 2420만원으로 급락했다.

이어 ▲닛산 알티마 3.5(48.7%) ▲아우디 뉴A6(48.1%) ▲혼다 올뉴 어코드 3.5(48.1%) ▲벤츠 뉴S클래스 S500L(48%) ▲BMW 뉴7시리즈 740Li(46.5%) ▲아우디 뉴A4(46.3%) ▲BMW 뉴7시리즈 740i(46.1%) ▲벤츠 뉴C클래스(42%)가 6~10위에 올랐다. 국산차는 11위부터 등장했다.

국산차 가운데 감가율이 가장 높은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쿠페(41.8%)였으며, 르노삼성 SM5뉴임프레션(40.7%·13위), 르노삼성 SM7뉴아트(37.5%·17위), 현대 더 럭셔리그랜저(37.1%·18위)도 비교적 감가율이 높았다. 기아 K5 2.0은 감가율이 25.4%로 가장 낮았으며, 현대 YF쏘나타(29.5%)와 르노삼성 뉴SM5신형(30.4%)이 뒤를 이었다. 수입차로는 유일하게 BMW 뉴5시리즈(31%)가 하위 4위에 올랐다. /채성오기자 zero@

# 광란의 누드댄스 사진 인터넷 확산 찬반양론

metro Russia

'심장 약한 분은 보지 마세요.'

러시아 클럽에서 찍은 누드 사진이 최근 이 같은 제목으로 주요 웹사이트에 공개되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과감한 신체 노출과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충동적이 담긴 사진은 2005년 '옴스크' 클럽에서 누드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찍은 것이다. 사진 속 주인공들은 엉덩이를 드러낸 채 춤을 추는가 하면 온몸에 크림을 잔뜩 바르고 양손을 번쩍 치켜들고 있다. 주사기 끝은 엉덩이에 주입하려는 남성의 사진도 눈에 띈다.

클럽 사진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해 러시아 네티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옴스크 클럽

의 사진은 성지옥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역겨워"이라며 "도를 넘은 '광란의 밤'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클럽 분위기가 즐거워 보여 한번 참가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사 엘레나 라히모바는 "이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은 금지해야 하는데, 누드 파티 행위에 대한 처벌을 연방법으로 묻을 수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에서는 아동 누드 사진 유포 행위만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마리야 네캬예소 기자·정리=조선미기자

## 중국, 밀크 빠진 '쓰레기 밀크티' 충격

metro HongKong

중국 대학생이 '쓰레기 밀크티' 전문점의 비밀을 폭로했다.

충칭의 한 밀크티 전문점에서 두 달간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 양씨는 13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밀크티 매장 뒤편 사진 10여장을 올렸다.

그는 "이곳의 밀크티는 우유나 분유가 아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 분말로 만들어지고, 함께 파는 간식거리는 화장실에서 만든다"고 밝혔다.

최근 매장을 조사한 식약품관리국은 "매장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들이 있었다"며 "음료 재료와 위생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아수라장 결승선 근처에서 폭발이 발생해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마라톤 참가자들이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AP연합뉴스

# 구글 '사람찾기' 빛났다

보스턴 테러 이모저모

## NBA·NHL 보스턴 홈경기도 모두 취소

○ 구글은 아수라장으로 변한 보스턴 지역에서 '사람 찾기' 서비스를 긴급 게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보스턴 경찰은 폭발물의 원격 기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내 휴대전화 서비스를 전면 폐쇄했다. 마라톤 참가자 등 사고 현장 인근 시민들은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구글은 마라톤 참가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구글 퍼슨 파인더' 사이트를 가동했다. 이용자들은 사이트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사고 현장에 있는 누군가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결승선서 아빠 기다리다 참변**

○ 15일(현지시간)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발사고 희생자 가운데 8세 소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소년은 폭발이 일어난 마라톤 대회 결승선 근처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소년은 대회에 출전한 아버지가 결승선을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은 이번 폭발로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사망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사망자 가운데 이 소년도 포함돼 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

**메이저리그는 예정대로 열려**

○ 폭탄 테러 여파로 보스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프로농구(NBA)와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경기는 취소됐다.

NBA 사무국은 "16일 보스턴의 TD가든에서 열릴 예정이던 보스턴 셀틱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두 팀은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됐고 플레이오프 시드도 정해져 추후 경기 재편성 없이 정규리그 맞대결을 취소하기로 했다.

긴박한 순간 부상을 입고 거리에 쓰러져 있는 마라톤 참가자를 시민들이 일으켜 세우고 있다. /AP연합뉴스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 탬파베이 레이스의 보스턴 홈 경기는 이날 오전 예정대로 치러졌다. 보스턴이 3-2로 이겼다.

/조선미기자 csunmi@metroseoul.co.kr

# “면역력 증진하는 알로에 생초보다 가공품 더 효과”

## 유니베라 신제품 5종 출시 이병훈 대표 기자 간담회

“면역 다당체는 많이 먹을수록 면역력이 증진됩니다. 알로에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생초보다는 가공된 제품을 먹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건강식품 전문기업 유니베라 이병훈 대표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제품 가운데 가장 많은 면역다당체를 함유한 ‘알로엑스골드 엑스피’와 고기능성 보습 케어 화장품 ‘리니시에 M40X 아쿠아파워 라인’ 5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알로엑스골드 엑스피는 마시는 주스 타입의 알로에 제품이다. 현재 유통중인 알로에 건강기능식품들은 100~200㎎의 다당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알로엑스골드 엑스피는 다당체 함유량이 300㎎(1일 섭취량 기준)에 이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알로에 다당체는 면역력 증진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핵심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제품 개발을 주도한 도선길 유니베라 연구소장은 “하루 300㎎ 이상의 다당체를 섭취할 경우 백혈구 세포 생성 및 분화, 체내 방어 작용 증진이 활발해져 빠르게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유니베라 대표는 “알로엑스골드 엑스피는 유니베라만의 차별화된 공법과 우수한 원료로 만들어진 혁신적인 제품”이라며 “알로엑스골드 엑스피는 ‘자연에서 건강을 찾다’라는 유니베라의 기업철학이 반영된 제품으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습 케어의 결정판 리니시에 M40 아쿠아파워

이날 유니베라는 고기능성 화장품 ‘리니시에 M40 아쿠아파워’ 라인도 함께 공개했다. 알로에 고유의 수분홀딩과 보습 기능을 담당하는 보습 다당체 함량을 생초대비 40배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보습 다당체는 알로에 다당체 중 크기가 작아 진피층까지 침투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며 “특히 인체에 유해한 파라벤, 계면활성제, 착색제, 동물성 유래 원료 등 30여 가지 성분을 모두 제외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 송중기 ‘스프라이트’ 모델

배우 송중기가 2년 연속 코카-콜라 ‘스프라이트’의 모델로 발탁됐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젊은 트렌드세터들을 대변하며 상쾌한 미소와 깨끗하고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가진 송중기가 ‘스프라이트’와 잘 부합한다”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젊은 층에게 깨끗하고 상쾌한 스프라이트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프랑스男·한국인女 알콩달콩 결혼이야기

**화제의 책**

덜렁대는 성격에 다혈질이지만 심성이 고운 프랑스인 남자와 재봉·글쓰기를 사랑하는 한국인 저자가 파리에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에 골인해 두 아이의 부모가 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렸다.

저자는 ‘모든 갈등과 난관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고리타분한 연애관 대신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키워드로 제시한다. 단일민족으로 한 나라에서 태어나 같은 문화를 공유한 커플에게도 살다 보면 위기가 오는 법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고서방과 아겔도 마찬가지다. 얼굴색만 다를 뿐 평범한 두 남녀가 만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마치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듣는 듯하다.

사랑에 게으른 자들에게도 인연은 있다. 극과 극의 두 남녀, 닮아갈 순 없어도 가까워지기. 국경 없는 세상 사월드 등 구구절절 공감을 이끌어내는 챕터가 끝날 때마다 등장하는 ‘언디의 바겟어리 충고’에는 연애 문제부터 직장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한 발 앞서 경험한 저자의 현실적인 충고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앞서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고서방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결혼 생활을 연재하며 상당수의 팬을 확보한 저자는 자신의 미래를 열정을 갖고 준비하는 파트너라면 국적과 인종은 중요하지 않다는 연애·결혼관을 전한다.

마담파리의 고서방

아겔/가위

**포털 연재 ‘고서방…’ 출간 미래 가꾸는 파트너라면 국적·인종 중요하지 않아**

/김보람기자 kwon@

**새로 나온 책**

## 당신 노리는 휴대폰 게임 속 ‘음모의 늪’

### 게임

안데르스 데 라 모테/펭귄세상

전직 경찰이자 현재 국제보안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스웨덴 작가가 쓴 범죄소설. 저자는 사회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휴대전화 게임에 빠져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에 현대사회의 문제를 흥미롭게 녹여냈다.

어느 날 우연히 휴대전화를 주운 주인공은 휴대전화 게임에 도취된 나머지 배후의 음모를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흐려지고,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돈하게 된다.

저자는 음모에 걸려든 한 개인이 비밀 조직을 파헤치고 무너뜨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현대인들 역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정보의 그 이면을 똑바로 봐야 한다고 경고한다.

누구나 갖고 있는 휴대전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트위터·유튜브·페이스북을 매개로 그려지는 사건의 전개는 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작가가 현장에서 쌓은 해박한 전문 지식은 소설의 개연성과 진정성을 높여 읽는 재미를 더한다.

/박지원기자 pjw@

### 마대라의 두 마리 토끼사냥

유시진/라코치

고려대 경영학과 유시진 교수가 마케팅 전략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 마케팅 전략 개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최신 마케팅 트렌드 등을 최대한 쉽게 풀어 썼다. 기업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아이디어도 수록했다.

### 회사 생활의 조건

장혜욱/원앤원북스

복사심부름이 하찮게 느껴진다면, 사내 파벌 정치는 불필요한 문화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착각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신입사원부터 대리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직장의 허와 실, 그곳에서의 생존 노하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 숨겨진 99% 진짜 나를 깨우는 하루 10분 두뇌 사용법

박정균/미다스북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은 현대인의 깊이 있는 사고를 방해한다. 경영컨설턴트인 저자는 하루 10분 진짜 생각하기 훈련을 통해 잠재된 창의성을 깨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양한 측면에서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 돈

장현도/새움

증권가 엘리트를 꿈꿨던 신입 브로커 조익현이 수수께끼의 인물 ‘번호표’를 만나면서 일확천금의 기회를 얻게 된다. ‘돈’만을 좇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오늘날 젊은이의 자화상과 여의도 증권가의 뒷이야기를 현실적으로 그려냈다.

### 아이템 인테리어 룸

성미당출판 편집부/삼호미디어

협소함이 돋보이는 실용 내추럴, 고풍스러운 유럽앤티크, 공간미와 연간미가 넘치는 북유럽풍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테리어 스타일 8가지를 담았다. 휴지통이나 소형 가구 패브릭을 이용한 공간 플랜도 알차다.

### 지금 내 아이의 진짜 속마음

김선경/가연도서관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를 운영 중인 저자는 아이가 느끼는 불행의 원천은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아이의 고민을 이해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방법을 가톨릭적 가치관과 성경 구절이 덧대어 제시했다.

# metro entertainment

## star bag

### 자작곡 담은 첫 앨범 발표

연기자 정은채가 16일 첫 EP앨범 '정은채'를 발표했다고 음반사 미러볼뮤직이 이날 전했다. 이 앨범은 그가 어릴 적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느낀 외로움을 담은 '이방인'을 비롯해 다섯 곡으로 꾸며졌다. 정은채가 전곡의 노랫말을 쓰고 타이틀곡 '소년, 소녀'는 인디밴드 마이앤트메리의 리더 도마스쿡이 함께 불렀다. 정은채는 영화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으로 해외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 '아이리스2' 특별출연

김소연이 KBS2 수목극 '아이리스2'에 특별 출연한다.

16일 제작사는 "김소연이 전편에서 연기했던 북측 공작원 김선화로 출연한다"며 "극중 친동생 김연화(임수향)가 언니의 행적을 쫓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19회가 방송될 이 드라마는 종영까지 2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 '불의 여신 정이' 광해군역

이상윤이 MBC 새 월화극 '불의 여신 정이'에서 문근영의 상대역으로 나선다.

16일 소속사에 따르면 그는 7월부터 방송될 이 드라마에서 광해군으로 출연해 조선 시대 최초의 여자 도공이었던 유정(문근영)과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에 빠진다. 앞서 막 내린 '내 딸 서영이'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상윤은 "폭군도 성군도 아닌 광해 그 자체를 연기할 것"이라고 캐스팅 소감을 밝혔다.

### 9년 만에 가요계 컴백

남성밴드 블랙신선이 다음달 중순 새 앨범을 발표한다.

소속사는 16일 "보컬 홍 보을 이안철을 중심으로 조정범(드럼) 서창석(기타) 이한주(베이스) 등 원년 멤버 네 명이 다시 나선다"며 "2004년 2집 '살롱 드 뮤지끄' 이후 9년 만의 복귀"라고 밝혔다. 2002년에 데뷔한 이들은 '데스티니' '사랑은 구라파에서' 등으로 인기를 누렸다.

# 전성기? 아직 갈길 멀었죠!

김성령(46)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고 있다. SBS 수목극 '야왕'의 안방극장 흥행에 이어 최근 막 내린 '야왕'의 인기에 힘입어 '미스코리아 출신'이란 꼬리표를 떼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서다. 뒤늦게 연기자로 주목받으면서 젊은 여배우들도 출연하기 어려운 CF 모델과 버라이어티쇼 MC 자리까지 꿰찼다. 여느새 또래 여성들의 '워너비'로 떠오른 그를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박연정기자 lak5421@metroseoul.co.kr

'야왕' 열연 '워너비'로 떠오른

## 김·성·령

**# 아름다운 카리스마 어필**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김성령은 인터뷰 몇 시간 전 여아들의 학교에서 진행하는 부모 참관수업에 다녀오면서 새삼 인기를 실감했다고 털어놨다. 같은 반 학부모들이 저마다 "드라마를 잘 봤다"며 부러움 가득 섞인 시선으로 인사해서다.

극중 백학그룹 회장의 장녀로 후계자인 백도경(정윤호)에게 엄마라는 사실을 숨기고 누나로 산 백도경을 열연했다. 이 캐릭터로 40대 중년 여성의 농익은 아름다움과 연기파 배우로서의 카리스마를 동시에 선보여 대중을 사로잡았다.

1988년 미스코리아 진 당선 이후 91년 김유진 감독의 영화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로 대종상과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연기자로 화려하게 데뷔했고 수많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대표작이 없었고 배우보다 미스코리아의 이미지가 강했었다.

"이 나이에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의 관심이 감사한 한편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부담이 되기도 해요."

하류 악을 맡은 여홍 실 연하의 권상우와 별로 연기도 펼쳤다. 각자의 길을 간 결말에 대해 "저도 커플 의 사랑이 이뤄지길 바랐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류는 며느리 주다해(수애)의 남자라 안 될 일"이라면서 "잠깐이지만 새로운 경험을 해서 좋았다. 다음엔 연하남과 절절한 러브스토리를 찍고 싶다"고 말하며 웃었다.

모자로 호흡을 맞췄던 동방신기 정윤호와의 연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도훈이 누나인 줄로만 알았던 도경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애써 삼켰고, 방송을 보면서 펑펑 울었다. 실제로 두 아이의 엄마인기에 가장 공감 가는 대목이었다.

**# 중년 한류스타로 우뚝**

동방신기 권상우 등 한류스타가 출연한 '야왕'이 아시아 드라마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김성령도 당당히 새내기(?) 한류스타로 떠올랐다.

지금처럼 주목받게 된 까닭은 남다른 노력 덕분이다. 지난달 25일 방영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서 연기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마흔이 넘어 대학에 들어가 20대의 어린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팬들과의 교류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지금의 기세를 몰아 다음달 7일부터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 방영될 여성 버라이어티쇼 '스토리온 우먼쇼'의 MC로 맡아 활동 반경을 넓힌다.

"방송을 앞두고 요즘은 예인 여자의 행복과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제 생각엔 여자가 행복하려면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힘을 길러 홀로 설 줄도 알아야 하죠. 저 역시 고민과 긴장의 연속인 연기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포기할 수 없답니다."

사진/이완기기자(도움이용 디자인/원작연

연기에 CF·MC까지 종횡무진 활약
도훈이가 엄마 부르는 신 기억 남아
다음엔 연하남과 러브스토리 찍고파

# 청순배우 멀리건 순수와 파격 사이

개츠비·'셰임'서 이누스 연기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청순녀' 캐리 멀리건이 순수와 파격을 오가는 이누스적인 연기로 다음달 국내 극장가를 시로잡는다.

멀리건은 올해 칸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5월 16일 개봉될 '위대한 개츠비'에서 여주인공 데이지(위) 역을 맡았다. F 스콧 피츠제럴드의 걸작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이 영화에서 그는 백만장자 개츠비(리어나도 디카프리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지만, 애정 그 이상을 갈구하는 속물녀로 출연해 1920년대 미국 상류층의 화려한 패션 감각을 선보인다.

일주일 앞서 5월 9일 공개될 '셰임'에서는 애정 결핍으로 괴로워하는 클럽 가수 씨씨(아래)를 연기한다.

극중 씨씨는 섹스 중독에 시달리는 뉴요커 브랜든(마이클 패스벤더)의 여동생으로, 오빠만큼이나 자유분방하고 불안정한 심리의 소유자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전라 노출에 도전했고, 클럽 장면에선 '뉴욕, 뉴욕'을 블루스 느낌으로 직접 불러 평론가들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85년 영국에서 태어난 멀리건은 앳된 얼굴과 다소 어울리지 않게(?) 170㎝의 늘씬한 몸매를 자랑한다.

드라마 조연으로 출발해 조니 뎁이 주연한 '퍼블릭 에너미'의 단역 등을 거쳐 2009년 '언 에듀케이션'으로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드는 17세 우등생 소녀 제니 역을 열연해 이듬해 런던비평가협회가 수여하는 여우주연상을 품에 안았다. 이후 '월 스트리트: 머니 네버 슬립스'와 '드라이브' 등에서 바람 불면 날아갈 듯한 미모를 과시해 '제2의 오드리 헵번'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또디

by 정연식

<637>그의 사랑

wood8686@naver.com

## '소시' 태연·서현 애니 더빙 한번 더

소녀시대의 태연(오른쪽)과 서현이 할리우드 3D 애니메이션 '슈퍼배드'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전문 성우 빰치는 더빙 실력을 뽐낸다.

태연과 서현은 9월 개봉될 2편에서 어른스러운 첫째 딸 마고와 말괄량이 둘째 딸 에디스의 목소리를 연기한다. 1편에서 악당이었던 주인공 그루를 착한 딸바보 양아버지로 바꿔놓았던 캐릭터들이다.

1편 개봉 당시 이들은 첫 더빙 도전이었지만,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과시해 애니메이션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특히 멤버들 가운데 모범생 이미지가 가장 강한 서현은 두덜거리는 음색에 반항기를 가득 담아 깜짝 놀랄 만한 변신을 선보였다. /조성준기자

## 아이스 매직쇼 다음달 30일부터 한남동서

미국 라스베이거스 오리지널 블록버스터 아이스 매직쇼인 '매직 온 아이스'가 다음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한남동 블루스퀘어 특설 아이스스테이지에서 펼쳐진다.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 독일 베를린의 프리드리스타드 팔라스트,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아레나 등 전 세계 200여 개 도시에서 4000회 이상 공연해 2000만 명의 관객을 매혹시킨 새로운 장르의 초대형 아이스쇼다.

이번 공연에는 일곱 살 때 미국으로 이민가 세계적인 프로스케이터가 된 재미교포 목예빈이 솔로이스트로 20년 만에 고국무대에 선다. /유순호기자 sune@

급부상하는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지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 동북아 교류의 중심 및 북극항로 허브에 맞는 항만수송의 최적지
- 초경량소재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비철금속 광물자원의 보고
- 전국 최고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사계절 명품 해양관광 중심지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교통 물류의 획기적 개선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투자상담 및 문의 033 249-2997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4개지구(8.25㎢)

**1 북평 IC(국제복합산업)지구**

**2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3 망상 플로라시티**

**4 구정 탄소제로시티**

# 16세차 토니안·혜리 열애

HOT 출신 토니안(촘촘)과 걸스데이의 혜리가 열여섯 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열애 중이다.

걸스데이 소속사 측은 16일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고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아이돌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이들은 걸스데이가 지난달 첫 정규앨범으로 컴백해 활동을 시작하면서 더욱 자주 만나게 됐고 조금씩 사랑을 키워갔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로 토니안의 차에서 데이트를 즐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토니안이 혜리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혜리는 토니안의 진절한 마음 씀씀이와 선배로서의 따뜻한 조언에 마음이 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측 소속사는 교제 초기이고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적지 않은 점 때문에 확대해석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걸그룹의 교제는 활동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걸스데이 소속사는 "소속사 내부에서 이들의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e@

# 김정화, 가수 유은성과 결혼

배우 김정화가 올 가을 결혼을 공식 발표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15일 "김정화 씨가 CCM 가수 유은성씨와 지난해 8월부터 8개월간 교제해 왔다"면서 "두 사람이 얼마 전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올 가을 결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 '그날들'이 6월 말에 끝나 결혼식을 가을로 정했지만 정확한 날짜와 식장은 정하지 않았다"면서 "공연 후부터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들은 기아대책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서로를 알게 됐다. 지난해 김정화가 에세이 '안녕, 아그네스'를 출간했을 당시 함께 발표한 동명의 노래를 작업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 노래는 김정화가 직접 노랫말을 쓰고 유은성이 작곡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김정화가 어머니를 여읜 뒤에 결혼을 결심한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유은성씨가 곁에서 많은 힘이 돼줬다. 이 일로 믿음과 사랑이 굳어지면서 평생 함께 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정화는 얼마 전 메트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을 고백하면서 "좋은 인연이 있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결혼 계획을 슬쩍 내비치기도 했다. /박준용기자 pjk0427@

### 김수로, SM C&C 새둥지

김수로가 새 둥지에서 강호동·장동건과 한솥밥을 먹는다.

SM C&C는 16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김수로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하고 체계적인 매니지먼트 지원 아래 더 폭넓은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악극 '유럽블로그'와 MBC '일밤-진짜 사나이'에 출연 중인 김수로는 "앞으로 새롭고 다양한 모습을 한국뿐 아니라 전 아시아 지역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준용기자

# "가왕의 노래 심장이 뛴다"

**신곡 '바운스' 공개…찬사 릴레이**
**싸이 '젠틀맨' 최단기 1억뷰 돌파**

국제가수 싸이에 이어 '가왕'까지 베일을 벗었다.

10년 만의 새 앨범인 19집 '헬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조용필이 16일 수록곡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달 초 미디어 청음회에서 음악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곡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1번 트랙 '바운스'로 컴백의 시동을 걸었다.

19집의 파격과 혁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곡이라는 소속사의 설명과 같이 신곡이 공개되자 세대를 아우르는 호평이 쏟아졌다. 각종 연예 관련 게시판에는 "가왕의 진가란 이런 것" "64세 가수의 음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감각적인 세션 배치와 상큼한 노랫말은 해외의 젊은 팝 아티스트의 음악을 연상케 한다"는 다양한 댓글이 줄을 이었다.

후배 가수들도 트위터를 통해 감탄을 쏟아냈다. 빅뱅의 대양은 "와우, 조용필 선배님 이렇게 좋을 수가"라며 바운스의 가사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대 들릴까 겁나'를 함께 적었다. 샤이니의 김종현은 "말이 필요 없지요. 들어보세요. 존경해요 선생님"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용필처럼 '응답하라' 인연을 맺었던 밴드의 멤버 한 명은 "조용필 선배님의 '바운스' 꼭 들어보세요. 진짜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뮤지션! 19집 너무 기대돼요"라고 극찬했다. 포미닛의 전지윤은 "지금 조용필 선생님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듣는 중! 곧 10년 만에 19집을 내신다는데 우와 완전 기대돼요!"라고 남겼다.

조용필은 23일 대규모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앨범 전체를 공개할 예정이라 '가왕'을 향한 팬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편 싸이는 해외에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16일 오후 12시 8000만 뷰를 넘었고, 역대 유튜브 최단시간 1억 건을 돌파했다. 음원은 33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달리며 전 세계 종합차트에서도 정상에 올라섰다. /유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 옥택연 '결혼전야'로 스크린 첫 도전

**'이연희 남친' 원철 역 맡아**

2PM의 옥택연이 영화 '결혼전야'로 처음 스크린에 도전하는 소감을 전했다.

이달 말 촬영에 들어가는 옥택연은 "스크린 데뷔작에서 좋은 감독님, 좋은 선배님들과 호흡을 맞추게 돼 영광"이라며 "멋진 작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09년작 '키친'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홍지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을 이 영화는 결혼식을 1주일 앞둔 네 커플이 겪게 되는 메리지 블루(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를 실감나는 에피소드로 그려낸다.

드라마 '신데렐라언니'와 '드림하이'로 연기자 신고식을 치뤘던 옥택연은 능력 있는 셰프이자 이연희의 남자친구 원철 역을 맡아 주지훈과 삼각관계를 연기한다. /유순호기자 sune@

# 김현중, 일본서 세번째 싱글 6월 발표

새로운 오리콘 '제왕'으로 떠오른 김현중이 일본에서 올해 첫 싱글을 발표한다.

6월 5일 3곡이 수록될 새 싱글을 출시한다. 싱글 제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속사 키이스트는 "각각의 곡마다 새로운 스타일의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중은 지난해 초 일본에 데뷔해 두 장의 싱글과 한 장의 정규앨범을 발표했다. 두 번째 싱글 '히트'는 오리콘 일간·주간차트 1위, 정규앨범 '언리미티드'는 일간차트 1위를 기록하며 K-팝 대표 솔로주자로 우뚝 섰다.

한편 김현중은 앨범 준비와 함께 21일 처음 방송될 SBS 새 예능 프로그램 '맨발의 친구들'에 출연한다. /유순호기자 sune@

# 푸른 제주바다 옆 샛노란 '시월애의 섬'

**웰컴 투 '우도의 봄'**

우도는 영화 '시월애' '인어공주'를 촬영한 곳으로 섬마을의 이늑한 정취와 하얀 백사장이 무척 인상적이다. 동남쪽에 솟은 우도봉(132m) 아래 펼쳐진 17㎞의 해안선에 서면 우도의 명승 '우도팔경'이 모습을 드러낸다. 우도팔경이란 낮과 밤(주간명월·야항어범), 하늘과 땅(천진관산·지두청사), 앞과 뒤(전포망대·후해석벽), 동과 서(동안경굴·서빈백사)를 말한다.

19일부터 21일까지는 우도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 유채꽃·소라축제가 열린다. 해녀들이 직접 잡은 소라와 오분자기 등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체험어장(원담바릇잡이), 수산물 구워먹기, 전국시진촬영대회, 구엄낚시체험, 깃트기(걸궁), 제주민속공연, 우도사람 건강걷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 **우도 전설**= 제주도의 거인 할머니 '설문대할망'이 왼쪽 발을 식산봉과 일출봉에 걸치고 앉아 오줌을 쌌다. 거센 오줌 줄기에 깎여 패인 곳은 바다가 되었고, 떨어져 나간 육지 조각은 우도가 됐다. 그때 설문대할망의 오줌이 흘러간 흔적이 너무 강해서 지금도 우도를 감싼 바다는 배가 난파하면 그 형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조류가 무척 세다고 한다.

**◆ 머체왓숲길과 고사리축제**

남원읍 한남리에 위치한 머체왓숲길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에 개장했다.

돌이 많은 밭이라는 뜻의 머체왓은 입구의 방문자센터에서 시작해 돌담쉼터→느쟁이왓다리→방애혹→머체왓전망대→산림욕치유쉼터→머체왓집터→목장길→서중천숨터널→참꽃나무숲길로 이어지며, 도보로 약 2시간30분 정도 걸리는 6.7㎞ 하이킹 코스다.

머체왓숲길이 펼쳐진 남원읍은 감귤의 명산지로 큰엉경승지가 있는 해변과 중산간의 포근한 오름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이다. 중산간의 너른 들에 자라는 고사리는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됐을 정도로 그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19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19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축제에서는 자생 고사리를 직접 꺾고, 넘치는 생명력과 희망의 기운을 소쿠리 한가득 담아갈 수 있다.

## 19~21일 유채꽃·소라축제 해녀 갓잡은 해산물 등 체험
## 19~28일 고사리축제 여는 남원읍엔 '머체왓숲길' 손짓

**제주를 음미하는 시 감상**

**■ 제주어 버전**

**공비 싫픈 너신디** /고훈식

공부허기 싫르민
허지마라
그 대신 이주후제
공부랑 헌 사름
부릉사려도 살라
부릉사려도
허영적사리 허영
너보다 계흐른 사름을
부르바 사기멍 살라

**■ 표준어 버전**

**공부하기 싫은 너에게** /고훈식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마라
그 대신 크면
공부 잘한 사람
심부름하면서 살라
심부름이라도
열심히 하여
너보다 게으른 사람을
심부름 시키면서 살라

〈제주관광공사 제공〉

**◆ 제주 동부지역 알짜여행코스**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동부지역의 숨은 명소를 즐길 수 있는 알짜배기 2박3일 여행 코스를 추천했다. 이 코스를 둘러볼 때 가장 중요한 팁은 아무런 걱정 없이 계획해 둔 예산대로 관광을 즐기는 것이다.

*__제1일차__ 공항 도착→성산항→우도 도항선 승선→우도 관광(카트 대여 후 섬 일주)→중식(해물뚝배기 등)→성산항 도착→성산일출봉→광치기해변산책→숙박(동부지역)

*__제2일차__ 숙소→아쿠아플라넷→섭지코지→올인하우스→휘닉스아일랜드→중식→일출랜드→김영갑갤러리→제주민속촌→성읍민속마을→조랑말 승마 체험→몽골리안 마상쇼 관람→숙소(동부지역)

*__제3일차__ 숙소→세계자연유산센터→에코랜드→제주돌문화공원→중식→절물자연휴양림→노루생태관찰원→별빛누리공원→제주대학교→공항

/김현정기자 kwon@metroseoul.co.kr

29주년 Thank You!

치킨이 생각날땐~ KFC

Really?

신선한 국내산

통살버거

안전·위생

갈지 않은 치킨통살

# 타워버거

~~4,600~~

3,200원

기간:4/15(월)~4/21(일)

sogood

# 황사 휘몰아쳐도 우리집 맑끔

### 코웨이 초슬림 공기청정기 2단계의 황사전용 필터 탑재해 유해 바이러스 99.9%이상 제거

반기고 싶지 않지만 봄은 불청객 '황사'의 계절이기도 하다.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황사철에는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창문을 여는 등 환기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나 화초 등으로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야 한다.

황사철이 바짝 다가오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황사 모드부터 황사 필터를 탑재한 황사 전용 공기청정기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 황사 잡는 초슬림 청정기**

코웨이의 황사 잡는 초슬림 공기청정기(AP-1013A)는 2단계 황사 필터 시스템을 도입해 심혈 호흡기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황사 유해 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한다.

1단계로 황사 전용 필터를 통해 월 안까지 들어온 황사 물질 및 황산화물(SOx)을 걸러준다. 2단계로 특수 기능성 필터인 항바이러스 헤파필터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유해 바이러스를 99.9% 이상 제거해 깨끗한 실내 공기를 제공해준다.

특히 요즘 같은 황사철에는 제품 자체에서 황사 모드를 가동시킬 수 있어 실내에 황사가 들어올 경우 공기 유속을 변동시켜 미세먼지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코웨이의 황사 전용 공기청정기는 5단계의 필터를 거쳐 청정한 공기를 만들어낸다"며 "특히 황사 전용 필터의 경우 황사 시 발생되는 분진 및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국내 최초의 황사 전용 공기청정 필터"라고 설명했다.

**◆ 황사 전용 공기청정기 사용법**

황사철에 잦은 환기는 호흡기 질환이나 자극성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황사철에는 공기청정기를 하루 종일 최소 풍량으로 틀어놓는 게 좋다. 전기 사용량은 최대 풍량으로 단시간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전기료 걱정도 없다.

3~4월 같이 황사가 많은 시즌에는 공기청정기를 자동 모드로 하고, 먼지가 없을 때는 절전으로 맞춰 먼지가 감지됐을 때만 작동하도록 한다. 또 황사주의보가 있거나 외부에 먼지가 많은 날에는 황사 모드로 바꿔 빠르게 먼지를 제거하면 된다.

/박지원기자

**공기청정기 사용법 유의점**

### 시간별 위치 이동 1대로 3~4대 효과

① **하루 30분 이상은 꼭 환기를 한다** 환기를 시킬 때는 마주 보는 창문끼리 엇갈리게 열어야 공기 순환 효과가 높다.

② **청소할 때는 공기청정기를 끈다** 청소할 때 창문을 열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신선한 공기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방해하고 과다한 이물질을 흡입하게 돼 필터 수명이 단축된다.

③ **시간대별로 사용 장소를 옮겨준다** 공기청정기는 표기된 실평수를 확인해 적합한 평형대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시간대별로 사용 장소를 옮기면 1대로 3~4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④ **공기청정기의 흡입구는 가전제품 쪽으로 향하게 한다** 미세먼지는 TV 등 전기가 흐르는 전자제품이나 그 주위에 가장 많다.

⑤ **요리할 때는 환기 후 사용한다** 요리 중 나오는 기름 섞인 필터를 막히게 해 필터 수명을 오히려 단축시키고 필터를 오염시킨다.

⑥ **필터 교체와 청소는 꼭 한다**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일반적으로 프리필터, 헤파필터, 항균필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프리필터는 2개월에 한 번, 항균필터나 헤파필터 등은 교환 주기에 따라 교체한다.

## 레스모아 캐주얼 슈즈 최대 50% 할인

신발 멀티숍 레스모아가 '캐주얼 슈즈 대전'을 실시한다.

이달 말까지 전국 레스모아 매장에서 클락스-로버스-팀버랜드-미네통카-케더펠라-허브-닥터마틴-메어워크-몰로 등 캐주얼 브랜드 슈즈를 구입하는 고객에 한해 최대 50%까지 할인해준다.

또 프로야구 시즌을 맞아 야구장 입장권을 소지한 고객과 엘리트 교복 구매 영수증을 지시한 고객에게 5% 추가 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푸짐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레스모아 명동점, 강남스퀘어점, 분당점, 신촌점, 천호점, 건대점 등 6개 매장에서 21일까지 아디다스 슈즈 두 켤레를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 세계적인 힙합 뮤지션 스눕독의 내한 공연 티켓을 선물한다. 문의 www.lesmore.com

/박지현기자

### '권미진의 레시피톡' 마셔요

천호식품이 '헬스걸' 개그우먼 권미진의 건강 다이어트 비법을 담은 '권미진의 레시피톡' 제품을 선보였다.

권미진이 매일 만들어 마셨다는 해독주스의 기본 재료인 당근·사과 양배추 토마토 바나나 브로콜리에 매실 레몬·푸룬 등을 더해 맛과 영양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아침·점심·저녁별로 최적화된 레시피와 섭취 방법을 제공하고 2·4·8주 과정 세트로 나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구성했다. 문의 www.chunho.net

## '육식 가족' 봄나들이에 희소식

### 강강술래 이번달 말까지 육포 30%할인 곰탕 무료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벚꽃축제와 신행, 캠핑 등 봄기운을 만끽하러 나선 상춘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펼친다.

강강술래 전 매장에서는 4월 말까지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를 30% 할인 판매하며 구매 시 간편가정식 한우사골곰탕을 무료 증정한다.

육포 선물세트(6봉)는 2만5200원에 판매하며 구매 시 곰탕(350ml·6300원) 1봉을 덤으로 주며, 스페셜 선물세트(12봉)도 5만400원에 곰탕(350ml·1만2600원) 2봉을 더 준다.

곰탕과 육포 모두 HACCP 인증 시설에서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넣지 않고 생산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환절기 건강관리 및 나들이나 캠핑용 먹거리로 제격이다.

상계점은 4월 30일까지 한돈양념구이(500g·2인분) 포장 상품을 반값인 1만5000원에 판매하며 돼지양념구이(500g), 한우불고기(500g) 포장 상품도 각각 1만원에 파격가로 제공한다.

온라인 쇼핑몰(www.sullai.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21일까지 신상품 LA갈비(1.8kg)를 25% 할인된 2만2500원, 한돈1호(1kg)는 47% 할인된 3만2000원에 판매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이벤트 참여)에 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한국인재인증센터 송수용 대표의 '꿈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1% 정성' 도서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벌인다.

## 스포츠브리핑

■ IAAF "보스턴 희생자 애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올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벌어진 폭탄 테러로 희생된 이들을 애도했다.

IAAF는 16일 홈페이지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발생한 테러로 전 세계 공동체와 더불어 깊은 충격에 빠졌다"며 "당시 희생자 유가족을 깊이 애도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뜻을 보낸다"고 전했다. 이날 마라톤 결승선 근처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폭발로 최소 2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 부상 구자철 2주 후 복귀 가능

구자철(24·아우크스부르크·사진)의 그라운드 복귀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16일 AFP통신에 따르면 구자철은 2주 후면 옆구리 부상에서 회복해 그라운드로 복귀한다. 그는 "빠른 속도로 뒤로 도는 동작을 할 때를 제외하곤 부상 부위에 통증이 없는 상태다. 27일 슈투트가르트와의 홈 경기에서 뛰고 싶다"고 말했다.

구자철은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경기에서 전반 10분 상대 선수와 부딪혀 옆구리를 다쳤다.

# 박인비 여골프 '넘버 1'

## 신지애 이어 한국 2번째

박인비(25)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세계 정상에 올랐다.

박인비는 16일(한국시간)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9.28점을 획득해 스테이시 루이스(미국·9.24)를 제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2006년 세계 랭킹이 도입되고 나서 한국 선수가 1위에 오르기는 2010년 신지애 이후 두 번째다. 더불어 안니카 소렌스탐, 로레나 오초아, 신지애, 미야자토 아이, 크리스티 커, 청야니, 루이스에 이어 세계에서 역대 8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2007년부터 LPGA 투어에서 뛴 박인비는 2008년 US여자오픈과 올해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등 메이저 2승을 포함해 통산 5승을 올렸다.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에서도 4승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LPGA 투어 상금왕과 최저타수상을 휩쓸어 한국 여자골프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2승을 올리며 루이스에 이어 상금랭킹 2위(56만7219달러)에 올라 있다.

한편 박인비는 18일 미국 하와이 오아후섬 코올리나 골프장에서 개막하는 LPGA 롯데챔피언십에 출전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 류현진 20일 3승 도전!

### 인터리그 첫 경기 볼티모어전

괴물 류현진(26·LA 다저스·사진)이 20일 오전 8시5분(한국시간) 시즌 3승 사냥에 나선다.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에 이어 2선발 자리를 굳힌 류현진은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오리올파크에서 볼티모어를 상대로 시즌 4번째로 선발 등판한다. 다저스가 아메리칸리그 팀과 맞붙는 인터리그 첫 경기로, 선발 맞대결할 투수는 올 시즌 2승1패를 기록한 우완 제이슨 해멀이다. 2006년 데뷔해 빅리그 콜로라도, 볼티모어 세 팀에서 통산 44승(52패)을 거뒀다.

류현진 역시 첫 원정 등판인 14일 애리조나전에서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솎아내며 3실점으로 역투하고 타석에서 3타수 3안타의 방망이를 때려 시즌 2승(1패)째를 수확했다.

아메리칸리그는 지명타자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날 류현진의 호쾌한 타격을 감상할 수는 없다. 타자로 나서는 부담이 없어 투구에만 집중하면 된다.

하지만 경기가 열리는 오리올파크는 타자 친화 구장 상위 10곳에 오를 정도로 투수에게 불리하다. 홈에서 왼쪽 펜스까지 거리는 102m, 홈~좌중간 거리는 111m, 홈~우측 펜스는 97m에 불과하다.

볼티모어는 지난해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15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오리올파크에서만 127개의 홈런을 양산해 아메리칸리그팀 중 홈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홈런을 터뜨렸다. 우타자 매니 마차도, J.J 하디와 좌타자 크리스 데이비스 등을 경계해야 한다.

/김민준기자

## 프로야구 전적 (16일)

■ 포항

| 팀 | | | | 계 |
|---|---|---|---|---|
| SK | 000 | 044 | 000 | 8 |
| 삼성 | 100 | 011 | 010 | 3 |

[illegible]

■ 대전

| 팀 | | | | 계 |
|---|---|---|---|---|
| NC | 310 | 000 | 000 | 4 |
| 한화 | 003 | 021 | 00X | 6 |

[illegible]

■ 광주

| 팀 | | | | 계 |
|---|---|---|---|---|
| LG | 000 | 100 | 010 | 2 |
| KIA | 020 | 000 | 30X | 5 |

[illegible]

■ 사직

| 팀 | | | | 계 |
|---|---|---|---|---|
| 넥센 | 000 | 102 | 040 | 7 |
| 롯데 | 040 | 000 | 000 | 4 |

[illegible]

## 프로축구 전적 (16일)

| | | | |
|---|---|---|---|
| 상주 | 0 | 3 | 포항 |
| 인천 | 0 | 0 | 전남 |

[illegible]

## 프로농구 챔피언결정 3차전 (16일)

| | | |
|---|---|---|
| 모비스 | 58-62 | SK |

# 김태균 역전포…한화 13연패 탈출

## 마수걸이 대포로 프로야구 최고 15억 몸값 '체면치레'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최고 연봉 타자' 김태균의 홈런포를 앞세워 NC 다이노스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프로야구 역대 최다인 개막 13연패 수렁에서 벗어났다.

한화는 16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NC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비티스타의 호투와 4번 타자 김태균의 맹타에 힘입어 6-4로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달 30일 개막 이래 13연패에 빠져 2003년 롯데 자이언츠의 종전 최고기록(12연패)을 10년 만에 갈아치운 한화는 14경기 만에 간신히 치욕의 행진을 멈췄다.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부터 이어진 14연패 사슬도 끊었다.

◆김응용 감독 눈시울 적셔

개인 최다 연패 기록도 13경기로 늘어나 체면을 구긴 김응용 감독은 2004년 삼성 라이온즈 사령탑이던 10월 4일 두산전 이후 3116일 만에 개인 통산 1477승째를 거뒀다.

삭발을 하고, 마운드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갖은 묘수에 기대 봐도 답을 찾지 못하던 한화를 구한 것은 전국 간판스타인 프로야구 최고 연봉(15억원) 타자 김태균이었다.

이날 경기 전까지 타율은 높았으나 홈런이 하나도 없어 4번 타자로서는 아쉬움을 남긴 김태균은 이날 시즌 마수걸이 홈런을 짜릿한 역전 투런포로 장식했다.

김태균은 홈런을 포함해 안타 2개로 4타점을 올로 불어담아 이날 역전을 이끈 영웅이 됐다.

SK는 포항에서 최정의 3점포 등 오처럼 시원하게 터진 타선을 앞세워 삼성을 8-3으로 제압하고 2연패에서 벗어났다.

/연합뉴스

# 추신수 13경기 연속 출루

추신수(31·신시내티·사진)가 13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16일 열린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지만 타율은 0.354에서 0.353으로 약간 떨어졌다. 신시내티는 이날 4-2로 승리해 5연패의 늪에서 탈출했다.

#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 Day 1 Hello 인사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문입니다.

###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좋은 아침이에요.
헬렌은 어떻게 지내나요?
그녀는 잘 지내요, 덕분에요.
오늘 저녁 기분은 어떠세요?
내일 만나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Good morning
How is Helen?
She's very well, thank you
How are you this evening?
See you tomorrow

###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빨리 말해보세요.

A Good morning, Bill. 어떤가요 Helen?
B She's fine, thank you

정답 How is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How's Helen / Mr. Green ?

2 Helen / Mr. Green is very well, thank you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 1000

01 To schedule _______ for an Estellis washing machine, please contact the customer service department.
(A) processes (B) actions
(C) developments (D) repairs

02 Not only is Emiko Imamura a widely published poet, she is also an _______ painter and sculptor.
(A) accomplished (B) accomplish
(C) accomplishment (D) accomplishes

01. 에스텔리스 세탁기 수리 일정을 정하시려면 고객 상담실로 연락하세요.
정답 (D) repairs

02. 에미코 이마무라는 작품이 널리 출간된 시인일 뿐 아니라 뛰어난 화가이자 조각가이다.
[illegible]
정답 (A) accomplished

##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 Part 3. Respond to questions

■ 횟수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

Q How often do you eat out?

A [횟수에 대한 언급]
I eat out every day.
[이유 및 근거]
Since I work, I eat out for my lunch with my coworkers. We usually eat Korean dishes.

How often 질문에는 특정한 행동을 하는 빈도 수를 말해준다. ... Once a month, twice a week, three times a day와 같이 구체적인 ... [illegible]

Hello, Korea!
flyscoot.com
Scoot(스쿠트)가 파격적인 요금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서울 타이페이
8만 8천원*
부터
서울-싱가포르
16만 8천원*
부터
FLYSCOOT.COM
scoot